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피아노 손열음



바이올린 신지아

^{첼로} 정명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섭니다.

광주일보사에서는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로 구성된 트리오 'Music from PyeongChang'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과 호남예술제 6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좀처럼 한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앙상블 연주가 인상적인 공연입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첼리스트 정명화는 설명이 필요없는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으로 최근에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예술감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손열음과 2012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신지아가 호흡을 맞춰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트리오는 이번 음악회에서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작품번호 90 둠키',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번호 7'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_{첼리스트} 정명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피아니스트 손열음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이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